

상록탑

가정의 달 그리고 아빠의 자리

“네 아빠가 너 태어났다고 기뻐서 달려오다가 다리까지 빠졌는지 봐야. 너 태어난 날 병원에 갑스하고 나타났어.”

엄마에게서 듣는 아빠와 관련한 이야기는 새롭기만 하다. 그렇다. 필자의 아빠는 소문난 ‘딸바보’다.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생생히 기억나는 추억이 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맞았던 눈 오는 겨울날이다. 눈이 펄펄 내리던 날 아빠, 동생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던 중 아빠는 눈을 찔고 찔아 작지만 우리가 놀 수 있는 눈썰매장을 만들어주었다. 성인 남자 허리정도 높이의 눈썰매장은 다음날 우리가 족판만 아니라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흔들리는 유치(乳齒)를 실로 묶어 뽑아준 사람도 아빠며 내게 두발자전거를 가르쳐 준 사람 역시 아빠다. 이 외에도 아빠와의 추억은 어린 시절 기억 곳곳에 자리해있다.

함께 TV 프로그램 ‘아빠를 부탁해’를 보던 중 필자의 엄마는 지나가듯 말했다. “지금 다 같이 있어서 그렇지 저렇게 아빠랑 단 둘이 있으면 너도 어색해 하겠지?” 아니라고 말했지만 한편으로 ‘실제로 아빠와 단 둘이 있으면 어떨까?’란 질문이 들었다. ‘어색하지 않다’라고 하기엔 마음 한 구석이 찢렸다.

최근 아버지와 자식 간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주목은 방송에서도 드러난다.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로 시



민소영
대학취재부 부장

“

가정의 달,

이제는 아빠에게

먼저 손 내밀 때

”

작한 ‘아빠’에 관한 프로그램은 올해 방영을 시작한 ‘아빠를 부탁해’까지 이어졌다. 20대인 자식과 아버지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빠를 부탁해’는 어딘가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어 공감을 얻었다.

4월26일 방영된 ‘아빠를 부탁해’에서 방송인 이경규 씨는 이런 말을 했다. “딸이 자라는 동안이 아빠들이 제일 바쁠 때다. 사회적으로 3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그때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거다.”

상황은 가족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아빠의 사회활동이 바쁜 시기에 자식은 자라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거기다 요즘에는 아이들까지도 바쁘다. 아빠는 회사에서,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낸다. 결국 각자의 자리에서 바쁜 아빠와 자식은 공유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

필자 역시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빠와의 관계가 어린 시절보다 소원해졌다. 필자는 필자대로 공부와 학원 때문에 바쁘다며 아빠와 시간을 공유하지 못했다. 특히나 새벽에 집을 나서 야간자율학습이 끝난 뒤에 야 집에 돌아오는 고등학생 때는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거의 없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빠와의 소원해진 관계를 회피한 것이 사실이다. 소원해졌다는 것도 떠올리지 않았다. 가끔씩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는 내가 먼저 아빠에게 연락하고 다가가는 것이 낯간지럽게 여겨졌다. 내가 아빠와의 시간을 잊고 살 듯 아빠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 편해서였을 것이다.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매우 우연한 기회에서였다. 20살 겨울, 잠시 들린 회사의 아빠 자리에서다. 필자조차도 옛날이라 기억 못하는 종이 카네이션, 초등학교 방학 숙제로 만들어간 지점도 탈 등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동생과 필자가 찍힌 사진도 함께.

필자도 아직까지 살갑게 말하거나 연락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가정의 달이라 불리는 ‘5월’이다. 잠깐 시간을 내어 문자, 한통, 전화 한통을 드려보는 것이 어떨까.

학생 칼럼

혼자서도 행복한 1인 식사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1인 가구는 5년 전인 2011년의 436만 명에서 506만 명으로 5년 사이에 14% 증가했다. 추이로 볼 때, 오는 2030년에는 1인 가구 수가 700만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나 혼자 산다’는 1인 가구는 대학가 원룸, 고시원, 직장가 오피스텔, 중년층 귀농 가구 등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나 홀로 식사족도 늘어났다. 1인 가구의 식사는 대부분 집에서 직접 해먹는 가정식 이외의 형태로 소비된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먹지 않는 이상, 혼자 먹는 끼니에는 배달음식, 간편 조리 식품 등을 애용하게 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혼자 맛있게 밥 먹기는 쉽지가 않다. 각종 반찬을 1인분씩만 해먹기는 번거롭고, 사 먹는 음식도 1인분씩 주문해 먹을 수 있는 메뉴는 한정적이다. 배달음식마저 1인분 배달은 어려운 곳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먹는 사람의 식사는 간단히 배를 채우는 과정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 ‘식사’의 의미는 배 채우기 이상이다. ‘언제 만나서 밥 한 끼 하자’라는 흔한 인사말 속의 식사는 끼니를 때우는 것보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정서적 교감을 하자는 의미가 강하다. 또, 식사를 하며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까닭은 주린 배를 채워서이기도 하지만, 보다 높은 차원의 즐거움은 새로운



박소영
광고홍보13

“

이제는

혼자서도

식사를 합시다

”

음식,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데서 발생한다. 그런데 간단히 끼니를 때우게 된 현대사회의 나 홀로 식사 족들은 식사의 가장 소극적인 의미와 가장 원초적인 즐거움만 느끼게 되었다.

몇 해 전부터 먹는 방송, 이른바 ‘먹방’ 프로그램이 뜨고 있다. 우리는 인간이 일상 속에서 수만 번을 경험할 수 있는 식사의 즐거움을 TV 프로그램에서 찾고 있다. 어쩌다 우리는 먹는 기쁨까지 간접경험을 통해 느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내가 삼시세끼를 직접 먹으면서도 정작 그 식사의 즐거움은 남이 먹는 것을 보며 느껴야 하는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다. 이것 또한 늘어난 끼니 때

우기 식나 홀로 식사의 영향이 아닌가 싶다.

1인가구가 500만 명 이상이 된 이제 혼자 먹더라도, 맛있는 식사 여유로운 식사 진짜 식사를 하는 문화가 좀 더 활성화 되어야 할 때이다. 더 많은 음식점들은 1인 메뉴를 개발하고, 혼자 먹는 사람들은 좀 더 자신의 식사 시간에 시간과 정성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

‘히토리 구라시’로 불리는 1인가구를 위해 일본의 많은 음식점들의 형태는 1인 식사를 더 쉽게 만들어준다. 도쿄의 한 음식점은 혼자 온 사람도 아무런 눈치를 보지 않고 코스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칸막이 형태로 되어있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는 1인 샵샵, 1인 고깃집 등 예전엔 상상하지 못했던 메뉴들이 1인가구를 위해 판매되고 있다. 다른 대안으로는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도 해볼 만한 일이다. SNS를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식사를 즐기는 소셜 다이닝은 맛있는 음식 뿐만 아니라 식사와 함께 타인과 소통하는 ‘밥 한끼 하자’의 의미를 실현시켜준다.

1인식사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는 더 행복하고 맛있는 1인식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아직은 행복한 식사를 위해서는 나 홀로 식사족이 많이 알아보고 찾아나가야 하는 단계이지만, 앞으로는 1인 식사족을 위한 많은 선택권이 생겨나고 모든 나홀로식사족이 행복한 식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론광장

다이어트를 부탁해

여자들의 평생의 숙제, 다이어트.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 역시 1일 1식, 원푸드, 등산 등등 안해본 방법이 없을 정도로 다이어트 하는 ‘방법’에는 일가견이 있다. 정작 한 번도 성공해본 적이 없는 나는 언제나 남산만한 나의 배를 친구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던 중 며칠 전에 엄마로부터 다이어트에 엄청난 투자를 해주겠다는 감작스러운 제안이 들어왔고, 나는 PT 비용을 지원받는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되었다. 확실히 돈을 들인 만큼 의지는 불타올랐고 지금은 2주째 식단조절

과 유산소, 근력 운동들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 다이어트의 성공기류를 잘 타고 있는 도중 나는 지금 최대의 위기에 놓였다.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해서 지금은 ‘수요미식회’, ‘오늘 뭐먹지?’ 등 각종 요리 프로그램을 보는 재미에 푹 빠져 버린 것이다. 최근 들어 요리 프로그램이 눈에 띄게 증가해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셰프들의 손에서 만들어진 먹음직스러운 요리는 당장이라도 입에 쑤셔 넣고 싶은 욕망을 들게 한다. 도대체 이 사회는 ‘다른 여자’를 미의 기준으로 정하고 다이어트를

강요하면서 여자들을 현혹시키는 요리 프로그램을 쏟아내는 이유는 뭤까. 그 이면에는 여성들을 최고의 호경, 즉 이용하기 좋은 소비자 취급을 하는 상술이 교묘하게 숨어 있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다고 돈 쓰고 살 뻔한다고 돈 쓰고, 여자 연예인들의 마른 몸매가 찬양 받을수록, 그리고 웨프들이 화려한 요리솜씨를 뽐낼수록 우리들의 지갑은 가벼워지고 다이어트에 대한 근심은 깊어져 간다. 그럼 이렇게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조작하는 사회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 선천적으로 마른 여자? 이렇게 여자의 적은 여자가 되고, 나는 식산업과 다이어트산업에 돈을 퍼붓는 호경이 된다... 아.. 일단 살부터 빼자!

최은영(사회13)

사설

여성혐오 그리고 이화

4월28일 페이스북 ‘김치녀’ 페이지에 4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화여대가 꼴페미로 낙인찍히고 남성들의 공공의 적이 된 이유들’이라는 제목과 함께였다. 사진 아래에는 ‘이화여대가 군대 갔다 온 아들이 폭력과 살인만 배워서 엄마의 자궁을 파괴한다는 내용의 반전·반군대 퍼포먼스를 했다’, ‘반전시위를 한다고 국방부에 페인트를 뿌렸다’ 등의 내용의 글도 포함됐다. 이후 ‘김치녀’ 페이지 관리자는 ‘이화여대가 남성들로부터 개육쳐먹는 이유’, ‘일부 이대생 때문에 이화여대가 남성들로부터 개육쳐먹는 이유’ 등으로 게시 글 제목을 변경했다.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해당 게시글 ‘좋아요’ 수는 약 4800개, 댓글 수는 약 720개를 기록했다. 해당 글 공유도 약 100회나 이뤄졌다(8일 오후1시 기준). 댓글 중 일부는 본교생을 ‘XX년’으로 칭하며 반인륜적 범죄의 표적이 돼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교는 악성 루머의 유포자인 페이지 관리자를 고소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보였다.

본교를 향한 악성 댓글과 터무니없는 비난은 비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재작년에는 한 남성이 본교 정문 앞

에 ‘여성부 OUT’ 피켓을 들고 나타났고, 본교를 ‘지성의 전당이 아닌 창녀를 양산하는 포주’라며 입에 담기조차 힘든 비방을 퍼붓기도 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여성혐오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왜 ‘이화여대’일까. 왜 우리는 터무니없는 여성혐오의 대상이 되어야만 할까. 여성혐오자들이 생각하는 여성, 그리고 이화여대생은 어떤 모습인 걸까.

사실 그런 것은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들이 원하는 여성의 ‘환상’이 어떤 모습이든, 그 모습에 맞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비난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을 가져다 붙이며 어떻게든 본교를 비방하려는 가상한 노력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다.

그러나 용서는 별개의 문제다. ‘이화여대생이기 때문에’ 반인륜적 범죄의 표적이 돼도 마땅하다거나, ‘김치녀’ 페이지 게시글 제목처럼 남성들로부터 욕을 먹어 마땅하다고 말하며 본교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을 날카롭게 주시해야 한다. 본교와 총학의 강경 대응이 무분별한 여성혐오자들에게 강력한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



금주의 책



헬렌 켈러는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앤 설리번의 기록

장호정 편역, 서울: 라의는, 2014
헬렌 켈러의 스승인 앤 설리번이 쓴 편지와 보고서 등을 엮은 이 책에서, 우리는 헬렌 켈러의 언어 습득과 지적 성장 과정, 세상과의 소통 방법, 앤 설리번의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 철학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앤 설리번의 헌신과 사랑으로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의 세 가지 장애를 가졌음에도 사회 운동가이자 작가, 연설가로 활동하며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싱그럽고 푸른 오월의 교정에서 교육의 힘과 스승의 사랑에 대해 한번쯤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며 이화인 여러분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대 도서관 좋은 책 추천위원회-
서고 위치: 중앙도서관 [2층홍 인기도서], [3층 여성학자료실 920.7 K282장]

0504~0508 중도 대출순위				제공=중앙도서관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올 아바웃 러브	Hooks, Bell	책읽는수요일 : 한국물가 정보	2012
2	요재지이	포송령	민음사	2002
3	숲의 종족 클로네 : 이환 판타지 장편소설	이환	삼양출판사 : 드림북스	2010-
4	관계문화이론 :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입문서 및 목회상담 사례집	권진숙	신앙과지성사	2013
5	정보통신건축	한국, 정보통신부, 조달 사무소	정보통신부 조달사무소	19---
6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 사진의 작은 역사 (외)	Benjamin, Walter.	길	2007
7	(정경왕) 엘퀴네스 : 이환 판타지 장편소설 개정판	이환	드림북스 : 삼양출판사	2011-2014
8	정글만리 : 조정래 장편소설	조정래	해냄출판사	2013
9	미생 : 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윤태호	위즈덤하우스	2012-2013
10	서강 한국어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하우 : 서강대학교국제문화교육원출판부	2004-2007
11	연구 방법과 논문 작성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9
12	가즈 나이트 = 이경영 판타지 장편소설	이경영	자음과 모음	1999
13	공예는 개꽃이 산다	윤태우	신영미디어	2007
14	1Q84 : 무라카미 하루키 장편소설	촌사촌수	문학동네	2009-2010